

“폭포수 아래서 속진 씻어내요”

표충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폭포 참선 체험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와 시원한 계곡 바람에 몸을 맡기고 참선하는 표충사 템플스테이 폭포 참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물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폭포 옆 바위 곳곳에 가 부좌를 하고 있었다. 8월 14일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44명은 재약산 계곡에 들어 속진을 털어내고 있었다.

표충사를 출발해 한 시간 남짓 산을 올랐다. 어느 사람의 템플스테이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폭포 참선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벼운 숨도 흘러내리는 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올라온 길이었다.

템플스테이 담당 해인 스님의 참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포수 소리가 가득한 계곡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활짝이

던 호흡이 가라앉고 땀도 식으니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바위에 부딪혀 생기는 포말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물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오로지 한 생각을 이어가는 동안 어느새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잡다한 생각들이 말끔히 씻겨져 버렸다.

표충사 템플스테이를 상설하면서 시작한 재약산 계곡 폭포 참선과 1천m 고지 습지답사는 반응이 폭발적이다. 사찰 예절, 108배, 발우공양 등의 기본적인 사찰 체험을 마친 뒤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도심의 각박함에 지친 이들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되는 까닭이다.

이날 폭포 참선을 체험한 이진우(34·구미시) 씨는 “2주

전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됐다”며 “폭포수가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준다”며 다른 직장 동료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지영(27) 씨는 “회사일로 답답할 때도 많은데 오늘 들었던 시원한 물소리를 떠올리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표충사 템플스테이는 이 밖에도 영남알프스로 통하는 재약산 끝자락에 있는 고사리분교와 고산 습지 탐방, 암자순례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으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서울에서 함께 참여한 한규만(54), 김금자(54) 부부는 “38년 전 고등학교불교학생회 수련법회에 다녀간 기억을 더듬으며 왔는데 역시 오길 잘했다”며 “마음도 다스리고 일상에 바빠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

고사리 분교 · 고산 습지 탐방 등 건강 초점 맞춘 프로그램 인기

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휴를 맞아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눠 진행했던 8월 13-15일 프로그램은 108배, 참선, 율령,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과 의 차담, 다도,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했다.

매일 둘째, 넷째 주말에 템플스테이를 상설하고 있는 표충사는 앞으로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템플스테이를 열 예정이다.

표충사와 재약산 정상을 연결하는 코스를 4단계로 나눠 참가자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진행하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은 “산에서 와서 각박한 세상을 밟고 물, 바람, 자연과 하나 되어 나를 텅 비워버리면 자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템플스테이 의의를 설명했다. www.pyochungsa.or.kr (055)352-1070

글·사진/표충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호국 영령들 뜻 기리는 계기”

통영 두타사 ‘해병훈의 집’ 기공

통영 두타사(주지 자용)는 8월 17일 제 55주년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맞아 두타사 경내에 해병훈의 집을 건립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봉행했다.

통영해병전우회(회장 조영규)와 함께 주최한 이날 기공식에는 진의장 통영시장, 해인사 총무국장 영조 스님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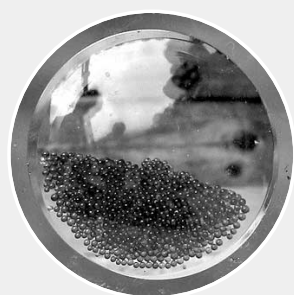
자용 스님은 환영사에서 “도량에 편히 봉안할 수 있는 해병훈의 집을 건립함으로써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낙성을 목표로 30평 규모로 건립되는 해병훈의 집에는 통영 상륙작전에서 희



두타사가 건립하는 ‘해병훈의 집’ 조감도

생된 19명의 호국 영령이 봉안되며 앞으로 진동지구 희생자 영령 봉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병훈의 집 건립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 육군, 경찰 등을 위한 위령재를 매년 봉행하고 호국영령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055)648-1477 천미희 기자



축서사, 적(赤) 사리 공개

진건 법회 후 석탑에 봉안

봉화 축서사(주지 무예)에 소장돼 있던 괘불탱에서 지난 2002년 발견했던 적(赤) 사리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 적사리는 지난 2002년 괘불을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발견된 사리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괘불탱화(보물 제 1379호)에서 발견된 이 적사리 2과(果)는 극히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서사는 사리의 온전한 보관과 봉안을 위해 불탑을 조성하기로 하고 불탑 조성에 앞서 9월 3일과 4일 축서사 대웅전에서 사리 친견 법회를 갖는다. (054)672-7579 천미희 기자

‘시민 위한 명상교실’ 열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불교위원회가 8월 17일부터 시작해 9월 7일 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명상교실’을 개최한다.

17일 진행된 1주차 교육의 주제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마음이란 무엇이며, 구성인자는 무엇인가?’ 였으며, 2주차는 ‘알아차림 대한 강의와 경기명상’, 3주에는 ‘마음작용’ 4주에는 ‘21세기 리더십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불교위원회 이세

호 위원장은 “이제 정치도 생활 속에 파고 들어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불교를 통해 찾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명상교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53)217-0700 배지선 기자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성황

8월 12일, 삼국유사 저술자 균위 인각사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를 기리는 716주기 다례제와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창백다례원 회원들의 육백공양으로 시작된 다례제는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박영연 균위 군수, 손우준 균위군 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돼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의 자주,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날 다례제에서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법타 스님은 “삼국유사를 읽고 또 읽어서 잘 사는 나라, 통일번영으로 존경받는 문화민족이 되자”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 정토원 뜻깊은 음악회

8월 15일 오후 7시, 대구 팔공산 자락의 자그마한 사찰 정토원(주지 고봉)에서는 ‘광복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환희세상’이 열렸다. 정토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광복 60주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마음을 모아 연 즉석 음악회다.

자그마한 법당에는 빌려온 그랜드 피아노와 북 드럼 등 여러 종류의 타악기들이 음악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신도와 마을주민 등 100여명의 관객이 정토원 마당을 가득 메웠다.

음악회를 마련한 고봉 스님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종교를 초월해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팔공산의 정기를 북돋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명강의로 갈증 풀어드려요

울산 연화사 9월 개원, 호계불교대학도 개설

경전법회 통한 대중포교도

법문과 강의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강사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불교교양대학이 울산에 문을 연다.

각화사 울산 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가 9월 3일 개원한다. 내년 3월에는 호계불교대학도 개강할 예정이다. 연화사는 개원과 동시에 호계불교대학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

호계불교대학이 개강하면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정인 스님, 동국대 교수 성본 스

님, 최봉수 동국대 교수, 통도사 전계대학 상인 해남 스님, 차차석 동국대 교수 등의 명 강사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호계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원시불교, 선사상, 불교와 사회복지, 근본불교, 반야심경, 여성과 불교, 불교와 계율, 좌선 실수 등의 과목으로 4개월 간 매주 목, 금요일 강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기초교리 과정이 마무리되면 육조단경, 금강경 등의 경전반을 모집, 보다 심화된 강좌를 열거할 예정이다.

연화사가 들어서는 울산시 북구 호계는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경주와 울산을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여서 향후 울산은 물론 인근 지역의 신행 패턴 변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 연화사는 화엄경, 금강경, 원각경 등의 산법법회로 대중포교의 문을 활짝 여는 한편, 젊은 층 포교를 위한 건강, 교양 강좌 등을 마련 불교의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금요참선법회, 일요일가족법회, 특별철야 정진 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신행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은 “인구 백만의 도시 울산에 걸맞는 수준 높은 강의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기복 불교를 과감하게 탈피,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수행과 실천을 이끌어가는 도심포교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052)293-5550 천미희 기자

예천 서약사 가족 음악회

예천 서약사(주지 도일)는 8월 24일 오후 7시 ‘가족과 함께하는 서약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리는 서약사 음악회에는 정수라, 해바라기, 김범룡, 조항호 등의 가수가 출연하며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한여름 밤을 수놓는다. 또 서약사 주지이자 기타 치는 스님으로 유명한 전봉가수 도일 스님, 예천 연방사 주지 일봉 스님 등이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도일 스님은 “가족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즐기면서,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아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54)655-1001 이은비 기자 remy@buddhapia.com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	5년	20명 (내선80%이내)	· 건강진단서 1통 (영문, 대사관 지정병원)
석사과정	3년	5명 (평정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사과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9월 15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불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해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문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分校 설립,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鎭,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문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鎮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문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문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瑋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 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외사고시 7명 합격
- 2005년 중국 국가외사고시 10명 합격

한국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